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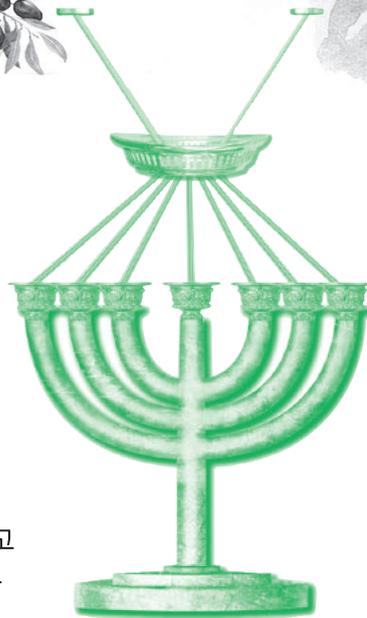
기약하라 기대하라, 새길을 만드소서

Expect, the New Way Maker

제18차 특별새벽부흥예배 뉴스레터 News Letter 240호 주후 2020년 11월 12일(목)

글로벌 특새, 3·5·7 비전의 현장입니다!

스가라가 본 순금 등잔대(속 4:2~3)



사랑의교회 3·5·7 비전은
3년 내에 한국 교회가 글로벌화 되어
5년 내 미국 교회와 협력하여 중국 교회를 섬기고
7년 내에 평양에서 특별새벽부흥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특새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3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3의 비전을 이미 이루었고,
5와 7의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도 글로벌 특새는 계속될 것입니다.

주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결의 영을 물 붓듯 부어주셔서
이단과 이념과 세속화의 뿌리가
뽑히게 하옵소서!

비록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삶의 영역이 다를지라도
전세계가 성령 안에서
유무상통하는 은혜를 허락해주옵소서!

TODAY'S PRAYER

초월적 회복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1. 글로벌 특새에 참석하는 모든 영가족들이 환경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아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한계를 뛰어 넘는 십자가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2. 병마와 싸우는 연약한 육체 위에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고, 정신적·정서적 고통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정결의 영으로 물 붓듯 부어주셔서 고통과 탄식까지 깊이 공감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3. 한국교회와 전세계교회가 사랑글로벌아카데미(SaGA)와 함께 영적 네트워크로 뚝뚝 뭉쳐 코로나19 이후 재편되는 시대 속에 새 길을 만들고 세속적 인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대장장이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향한 믿음(말 3:17~18)

크리스찬 소니아 목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킨 성도들의 고백처럼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주위 환경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생각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앓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고난 속에 개입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며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요약 On

고통과 탄식 안에서 하나 된 피조물 공동체(롬 8:18~27)

김희권 목사



피조세계 전체는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무리 좋게 한다고 해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오늘날 당하고 있는 고난은 미래에 있을 영광의 상상을 앗아갈 만큼 가혹한 비극적 현실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말할 수 없는 탄식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듣고 친히 중재하십니다.** 우리의 탄식, 아우성치는 고통을 중재한 결과 협력하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롬 8:28).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탄식하는 피조물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중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넘쳐나는 아우성치는 고통을 중재하는 제사장적 기도를 올려줄 때, 성령께서 성도의 안타까운 신음, 탄식, 아우성을 중재하셔서 하나님께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의 지속적인 중재에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유럽 On 유럽 전역을 향한 '사역의 병참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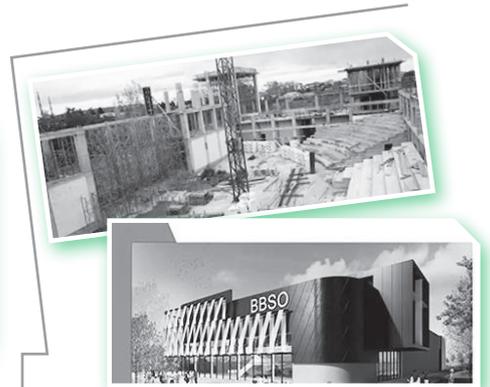


크리스찬 소니아 목사는 13년 전 루마니아 오라데아(Oradea)에서 젊은 공산당원을 양성하던 건물을 빌려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10여 년간 이 건물은 공산당원 배출이 아닌 하나님 나라 인재들을 양성하는 영적 훈련소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공간은 수 천명의 사람을 운집시킬 수 있는 공간인데, 전도 집회를 개최한 그 해 12월에 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장소를 옮겨, 2012년 오라데아에서 가장 큰 건물인 실내체육관을 빌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9년부터 오라데아 중심에 매입한 부지에 교회 벽돌이 한 장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완공되면 제자훈련, 선교사 파송으로 유럽 전역과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난 13년의 기적을 기억하고, 완공될 예배당 봉헌을 기대합니다.
유럽 전역과 전 세계를 향한 호프교회의 새 길을 만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오빠' 못 다한 이야기

영화 '교회 오빠'는 오은주 집사와 남편故 이관희 집사의 말기암 투병기, 투병 속에서 뻐어냈던 믿음의 고백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경험을 진솔하게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긴 남편의 미션은 (1) 딸 소연이 돌 생일 때 옆에 있어주는 것 (2) 소연이가 유치원 입학할 때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소연이가 작년에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미션은 지키지 못한 거죠.

하루는 소연이가 "왜 아빠는 천국에 갔어?"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랬더니 "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 저는 "엄마도 모르겠어."라고 답하여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며칠 뒤에 소연이가 아빠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빠, 보고싶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저는 **씩씩한 엄마가 되려고 하는데 그래도 반쪽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남편故 이관희 집사를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신앙의 유산과 유업을 이어 받아 감당하는 삶이 어렵지만, **더 많이 깨닫고 천국에 들어올 자격을 얻고 오라는 하나님의 뜻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소감 On 나에게 특새란?



영어예배부-고등부(STEM-High)
이주은 (Grace Lee)

특별새벽부흥회에 참여하면서 기도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많은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습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특새를 통해 배워갑니다.



중국어예배부
배백합 선교사

저희 가정은 남편 신학공부를 위해 한국에서 8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사랑의교회에 출석하면서 만난 한 분 한 분과 소중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교회 특새의 은혜를 받기 위해 새벽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찾았던 갈급한 마음과 열정을 항상 지키려고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사랑의교회의 은혜는 다음 스텝의 든든한 밑천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부교사
허진숙 집사

코로나 펜데믹으로 영적 침체의 시간, 사랑부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답답함 속에 '살기 위해' 온 생애와 기도, 사랑부 온라인 예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매하나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 아닐까 위기를 느낄 때 기적과 같이 현장예배가 회복되고 거대한 생명의 분화구, 특새의 문이 열렸습니다. 특새를 통해 내 안의 불순물을 씻어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키시길 기대합니다.



소망부
권도혁 형제

저는 직장, 사회, 친구 사이에서 너무도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공기를 맡으며 참석한 첫 특새날, 수화통역 자리에 앉자마자 그 동안 현장 예배에 오지 못했던 시간들, 온라인예배의 수화통역을 보면서는 아팠던 일이 기억을 스치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부족한 나였지만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 모든 불가능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축하 On

나는 함암말기 여동생에게 축복의 물로 가 되기 위해 특새에 온다. _이숙녀

왜냐하면 매주 맞는 함암주사가 여동생의 몸으로 들어가 나타나는 후유증이 있어 안타깝기 때문이다. 특새를 통해 주시는 복이 나를 통해 예배당을 수 없는 동생에게 흘러들어가도록 그래서 의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완치 판정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는다.

나는 _____ 때문에 특새에 온다.

왜냐하면 _____ 이기 때문이다.

내가 특새에 나오는 이유 _류은형

나는 고향집에 내려가는 설렘 때문에 특새에 온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버선발로 사랑글로벌 광장에서 부터 맞아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영가족들은 종종 걸음으로 풍성한 말씀과 찬양 식탁이 가득 차려진 본당으로 달려가고 은혜의 특새 잔치를 마음껏 누리 후엔 아버지께서 주신 풍성한 마음의 양식을 각자 한보따리씩 챙겨두고 오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넉넉히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기 때문이다.

특새는 태교다 _김지혜

나는 태교 때문에 특새에 온다. 왜냐하면 뱃속의 아이에게 특새의 은혜와 기쁨을 믿음의 가보로 물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특새 첫날 임신소식을 알게 되었다. 특새가 우리 온유의 첫 태교가 되었다. 시험관을 준비하면서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고 기도했었는데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채워 주심에 감사드린다. 첫 태교 특새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닮아 주님만을 주로 섬기는 아이가 되길 기도한다.

나는 개인회생하기 위해 특새에 온다.

_정경화

왜냐하면 주님께 마음의 파산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나 혼자로서는 해결하지 못한다. 주님께 아바, 아버지!!! 도와주세요! 외칠 수 있는 허락된 시간이다~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특새에 온다. _윤현주

왜냐하면 특새에 오면 사회에서 받는 세상적인 모든 것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주님과 밀접 접촉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JESUS 때문에 특새에 온다. _이수연

- J(Joy)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
- E(Expectation)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다.
- S(Spiritual power) 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 U(Union) 유니온 글로벌 사역을 통해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다.
- S(SaGA) 사랑글로벌아카데미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다.

내가 특새에 달려 나오는 이유 _이은미

나는 신랑(하나님)과의 일 년에 두 번 특별한 데이트의 설렘 때문에 특새에 온다. 왜냐하면 고요한 새벽에 신부인 나에게 풍성한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고 나의 깊은 기도를 듣고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I love God~♡

나는 동판 때문에 특새에 온다! _궁한경

나는 동판 때문에 특새에 온다. 왜냐하면 "길갈의 12돌" 이기 때문이다! 이번 특새에 올 9월에 결혼한 아들 내외가 앞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감격에 가까운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저들을 위해 한 일은 2003년부터 특새에 참가한 것 밖에 없는데 17년이 지나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이 특새에 참가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 감사!!

알림 On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초월적 회복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입니다.

2. 감사소개

*오늘: **릭 워렌 목사 (새들백교회)**

“고난을 어떻게 소망 가운데 통과할 것인가”(롬 8:28)

오은주 집사 (영화 '교회오빠')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렘 33:3)

*내일: **로렌 커닝햄 (YWAM 설립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마 6:6-8)

문성 선교사 (NTM, 파푸아뉴기니 부족사역)

“그리스도인의 인격”(눅 9:23-27)

3. 특새기간 주차 안내

마제스타시티: 월~금 오전 7시까지 출차,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출차(이후 유료), 더바인웨딩: 토요일만 가능, 오전 8시 30분까지 출차(이후 유료)

4.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은혜 게시판' 활용

한국교회/세계교회 성도님께서는 SaRang On YouTube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있는 <연합 특새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셔서 은혜게시판 (ReflectionBlog)에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성함과 교회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은혜 게시판' 활용 안내

특새에서 받은 은혜를 게시판에 기록하심으로 더욱 감사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 때문에 특새 온다를 은혜나눔과 함께 올린 분들만 '특새 마스크 스트랩'을, 최우수상 524번 이숙녀 성도와 539번 김지혜 성도님은 '말씀 캘리 작품'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남측 1층 안데스크)

더욱 은혜 나눔으로, 더욱 은혜 기대하자!

은혜게시판 On

♣ **호주 손효진**, 이곳은 오페라 하우스의 도시 시드니입니다. 이곳의 새벽기도가 끝나면 사랑의교회 글로벌 특새를 아주 적합한 시간대에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교파는 비록 다르지만, 사랑의교회 글로벌 특새는 코비드 쿼런틴(Covid-Quarantine) 가운데 영적인 최후의 배수진이자 앞으로 치고 나갈 영적인 최초의 총력전입니다. 세계의 수 천여 교회들의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올려 드리는 사랑의교회 특새야말로 코비드의 선물입니다.

♣ **웨일즈 Liam Steele**, 전 세계에서 온 그리스도의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유럽과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지역에 그분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크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 **대한민국 김정미**, 루마니아에 일어난 기적이 우리나라에도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루마니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북한에 대한 기대와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심지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3일차. 매일 매일의 말씀이 전부 제게 필요한 맞춤형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이리 저를 잘 아시는지. 내일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새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saga 사랑글로벌아카데미(SaGA) 단기특별과정

하나님의 온전한 한 사람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사랑글로벌아카데미 단기 특별 과정은 지난 10월 17일(토) 담임목사님의 통함 강의(온전론)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정규 스쿨과 연계된 특별 과정을 운영하여, 소명의식으로 준비된 평신도 리더들을 거룩한 예배자, 훈련된 제자, 일터의 선교자로 견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박정성 성도 (청년부)

성경적 예배 리포지셔닝

과정에 참여하는 내내 '예배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제 마음은 변화를 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 예배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권현준 집사 (목양5팀)

제자훈련 리포지셔닝

저는 이번 SaGA 단기 특별 과정에 참여하며 가슴 벅찬 시간 가운데 3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제 모습을 돌아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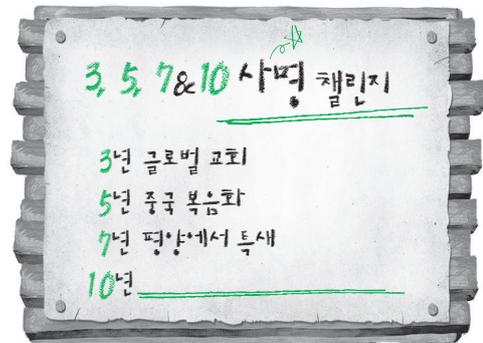
강혜연 교사 (목양7팀)

일터선교 리포지셔닝

SaGA 일터선교학과 과정을 통해, 성경적 토대를 기초로 일터선교사로서 가진 소명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터의 왕이 되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02-3495-1951, 1953 / saga@saga121.com / www.saga121.com



특새의 은혜와 영성으로 10년을 내다보며 내가 집중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요? "은혜 나눔과 함께 올린 분들"을 선정하여 '메탈 말씀 스티커 (사43:19)'를 선물로 드립니다.

넷째날

출석표

주여,
새 길을 열어주소서!

기대하라.

출석표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